

제임스 조이스 문학에 나타난 더블린 풍경들

전은경*

들어가는 말: 도시문학 - 제임스 조이스 - 『더블린 사람들』

I. 그레이트 브리튼 가(Great Britain Street) - 「자매들」("The Sisters")

II. 더블린의 장터 - 「애러비」("Araby")

III. 원점으로 회귀하는 배회 - 「두 한량」("Two Gallants")

IV. 더블린의 동상들 - 「죽은 사람들」("The Dead")

〈국문초록〉

서구의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작품의 배경과 소재를 전원보다는 도시에서 찾았다. 서구현대문학의 초석을 다진 조이스 역시 순전히 도시작가이다. 그는 도시가 지닌 지형과 역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도시는 그에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축적된 커다란 저장소로 생각되었다. 제임스 조이스는 평생 작가생활을 유럽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했지만 그의 작품의 배경은 한결같이 모국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며 더블린의 실제 건물들과 거리이름들이 작품에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제시되었다. 첫 단편소설집인 『더블린 사람들』부터 그의 모든 작품에는 아일랜드의 역사가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식민지역사와 그 역사가 아일랜드 민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족에게 남긴 정신적 상흔에 대하여 독특한 서술방안으로 기술하였다.

식민지 통치하에 영국의 정치.경제적 억압 외에 조이스에게 증대한 정신적 억압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일랜드국교인 로마가톨릭 종교였다.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종교적 억압은 아일랜드인들에게 정신적 폐해를 초래했고 조이스 이것을 “마미”(“paralysis”)라고 불렀다.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15개의 단편소설들 중에서 네 개의 단편을 중심으로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이 도시가 체험한 역사와 “마비”의 주제를 조이스는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아일랜드 역사, 식민주의, 로마 가톨릭교, 정신적 마비

들어가는 말 : 도시문학 – 제임스 조이스 – 『더블린 사람들』

현대문학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전원에서 도시로 바뀌게 된다. 20세기 전반 서구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대부분 “도시의 미학”을 탐구하였는데, 예로 프루스트(Proust)는 파리를, 엘리엇(Eliot)는 런던, 그리고 카프카(Kafka)는 프라하를, 드라이저(Dreiser)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여 작품을 썼다. 서구현대문학의 초석을 다졌던 아일랜드작가 제임스 조이스(James Augustine Aloysius Joyce 1882-1941)는 순전히 도시작가라고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전원을 이상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골에서 문화의 부재와 편협성을 보았다. 조이스에게 현대성(modernity)은 곧 도시성(urbanity)을 의미하였고 도시야말로 문학적 영감을 일깨우는 장소였다. 조이스는 각각의 도시가 지닌 지형과 역사에 각별한 흥미를 느꼈는데 그에게 도시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거대

한 저장소로 집단적인 인성을 지녔으며 그 도시의 역사가 축적된 공간으로 생각되었다.

조이스의 첫 소설인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은 당대 최초로 전원대신 도시가 배경으로 되어있는 단편소설집이다. 조이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1912년 유럽으로 자진하여 망명했고 트리에스테, 로마, 추리히, 파리 등 유럽의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작가생활을 했지만 그의 작품의 배경은 모두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이다. 더블린이라는 도시 자체는 조이스가 평생 집착했던 주제이다. 그는 “나는 항상 더블린에 대하여 글을 썼는데 그것은 더블린의 핵심에 도달하면 세계 모든 도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듯이 그는 더블린에서 도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았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더블린은 유럽에서 가장 궁핍한 도시였고 1840년대 비극적인 감자흉년이 발생한 후 굶주린 농촌 사람들은 더블린으로 몰려들었고 도시 곳곳에 슬럼이 형성되었다.

조이스가 태어난 시기 역시 영국의 식민지체제하에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더블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일랜드의 식민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는 발전을 가로막는 세 가지 속박에 묶여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영국, 로마 가톨릭 종교, 그리고 국내정치에 내부 분열이었다. 조이스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인간 영혼의 독자적인 힘을 말살한다고 보았고, 국내에서 일고 있었던 편협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해서도 불신하였다. 당시 비폭력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신 페인(Sinn Fein)당을 창설했던 아더 그리피스(Arthur Griffith)에 대하여도 통상을 중시하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아일랜드가 독립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과도하게 민족주의에 호소했던 점에는 반대했다. 그런가 하면 아일랜드 문예부흥을 주도했던 앵글로-아일랜드 작가들의 역사에 대한 감상적, 낭만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하여도 경계하며 조이스는 국제적 관점을 유지하려 했다. 조이스에게 아일랜드는 정치적으로 좌절되고 극단적인 폭력과 감상으로 인해서 무력하게 되고 내분과 배신이 난

무하는 식민지국가로 생각되었다. 조이스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에 있는 한 대학(the Università Popolare)에서 “아일랜드: 성인과 현자의 섬”(Ireland: Island of Saints and Sages)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모국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 나라의 영혼은 수세기에 걸쳐 초래된 불필요한 반목과 망가진 협정들에 의해서 약화 되었고, 개인적인 결단성은 교회의 영향과 정책에 의하여 마비 되었으며, 이 나라의 중심부는 경찰과 세무서, 주둔군에 의하여 족쇄가 채워져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아일랜드에 대하여 자긍심을 유지할 수 없고 재앙이 휩쓸고 간 이 나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 한다.(*Critical Writings* 171)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자국민들을 마비에 걸린 사람들로 비유했는데, 이는 식민지 국가에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아일랜드인들이 오랜 식민주의 역사가 빚어낸 노예근성이 몸에 배었고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무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가리켜 “모국의 도덕적 역사의 한 장”이라고 말했듯이 이 작품은 당시의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만연된 병에 대한 진단서와 같다. 그는 『더블린 사람들』을 출판한 리처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석탄 잿구멍과 시든 잡초 그리고 고기 찌꺼기들의 냄새가 제 이야기 주변에 맴도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말끔히 닦아놓은 저의 거울에서 아일랜드 민족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아일랜드 문명의 흐름은 지연될 것이라고 저는 진지하게 믿습니다”¹⁾라고 말한 바 있다.

『더블린 사람들』은 얼핏 단순한 단편소설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일랜드의 역사와 정치의 문제가 촘촘하게 들어있어 매우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복잡한 작품이다. 아울러 더블린이라는 도시는 최대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재현되어서 이 작품을 읽으면 더블린 시가지지를 관람하는 것 같다. 『더블린 사람들』과 『율리시스』(*Ulysses*)에 대하여 조이스는 “어느 날 더블린이 지

1) James Joyce, *Letters of James Joyce*, vol.1,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Press, 1957), PP. 63-64.

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내 작품을 통해서 더블린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 칠 정도로 그는 ‘실제’의 더블린을 자신의 작품에 재현하였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내용과 주제 외에 주목해야 할 또 한가지는 조이스의 예술성이다. 조이스는 이 작품을 “꼼꼼하고 고약한”(scrupulous meanness) 문체로 썼다고 말한바 있는데 모국이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는 현실을 낭만적으로 보기보다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감상주의(sentimentality)를 경계했던 조이스는 작품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언어를 절제있게 사용하였다. 조이스의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더블린은 어떠한 “집단적 인성과 역사”를 지닌 도시로 그려져 있는지, 아일랜드가 체험한 역사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정제되었는지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15개의 단편소설 중에서 「자매들」, 「애러비」, 「두건달」, 「죽은 사람들」의 네 스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그레이트 브리튼 가(Great Britain Street)- 「자매들」(“The Sisters”)

『더블린 사람들』의 첫 스토리 「자매들」은 가톨릭 신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소년은 평소 가깝게 지내며 가톨릭에 관해서 여러 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했던 신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듣고 신부에 대하여 회상 한다. 스토리는 다음 문단으로 시작된다.

이번에는 그에게 희망이 없다. 세 번째 발병이기 때문이다. 매일 저녁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그 때는 방학이었다) 나는 불이 켜진 네모난 창문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매일 저녁 불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희미하고 고르게 켜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일 그가 죽었다면 나는 어두운 블라인드에 촛불이 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시체 머리맡에는 촛불 두 개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자주 내게 “난 오래 살지 못 할거야”라고 말했는데 그가 한 이 말은 내게 부질

없는 소리로 들렸다. 이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매일 밤 그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나는 나직하게 “마비”(paralysis)라고 혼잣말을 했다.

(D 1)²⁾

『더블린 사람들』의 첫 문단에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인 “마비”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주제에 걸맞게 서술의 어조는 조용하게 가라 앉아있고 쇠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촛불마저 “희미하고 고르게”(faintly and evenly)게 타고 있어 불의 원래의 속성을 벗어나 있다.

죽은 신부는 은퇴 후 두 여동생 집에서 기거하였는데 소년은 그의 집이 있는 그레이트 브리튼 가(Great Britain Street)로 간다. 그 집은 “포복점”(Drapery)라는 희미하게 쓴 글씨의 간판을 달은 수수한 가게였고 평소에는 “우산 수리”(Umbrellas Re-covered)라는 쪽지가 창문에 붙어 있었다. 소년이 그 집에 갔을 때 현관문 노커에는 검정 조화가 리본과 함께 달려 있었고 신부의 죽음을 알리는 카드가 조화에 꽂혀 있었는데 남루한 차림의 두 여인과 전보배달 소년이 이것을 읽고 있었다. 신부를 돌보았던 두 자매가 생계를 위하여 운영하는 누추한 상점을 겸한 집, 그리고 카드를 읽고 있는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인물로 나오는 더블린은 초라해 보인다. 두 자매는 독신인데 아마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년이 신부 집에 가기 위하여 걸어가는 거리는 그레이트 브리튼 가(Great Britain Street)인데 거리 이름 자체로 20세기 초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음을 말해준다. 이 거리는 아일랜드 독립 후에 파넬 가(Parnell Street)로 명칭이 바뀌었다. 파넬은 애국적 정치가로 1877년 아일랜드 의회당(Irish Parliamentary Party)의 지도자로 추대되었고 영국에 맞서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정치적 거물이었다. 하지만 캐서린 오쉬어(Katharine O'Shea)와의 스캔들로 아일랜드 의회당이 그를 불신하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녔던 가톨릭교회가 그를 공공연하게 비난함으로써 몰

2) 본문에 인용된 작품의 판본은 James Joyce, *Dubliners*. London: Penguin Books, 1992 이며 번역은 필자가 했다. 인용된 작품의 표기는 작품명의 약자인 “D”로 하며, 쪽수는 이 판본의 쪽수이다.

락하게 된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간의 공모가 있었으며 파넬은 가톨릭교회와 지지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파리로 건너갔는데 이듬해에 죽음을 맞는다.³⁾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정점을 달리던 파넬의 몰락은 조이스에게 당시 아일랜드 정치판에 대한 원형으로 생각되었다. 가톨릭이 국교인 아일랜드에서 사제의 죽음은 정신적 지주의 부재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첫 스토리에서 아일랜드를 억압하는 두 세력으로 로마가톨릭교회와 영국의 식민통치가 지목되었다.

II. 더블린의 장터 - 「애러비」(“Araby”)

앞서 조이스는 감상주의(sentimentality)를 경계했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세 번째 단편소설인 「애러비」(“Araby”)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현실을 낭만적으로 채색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이 단편의 제목, “애러비”는 아라비아를 뜻하며 1894년 5월 14일 더블린에서 열렸던 동양의 이국적인 물품을 팔았던 자선바자회(Grand Oriental Fete)를 가리킨다. 친구의 누이를 짝사랑하는 주인공 소년은 그녀에게 자기가 이 바자회에 간다면 무엇이든 하나 사다 주겠노라고 무심결에 말을 해버린다. 이후 소년은 소녀에 대한 연정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바자회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바자회에 도착했을 때 막상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자신이 꿈꾸어온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물질적인 세계였다. 작품의 끝에서 소년은 자신이 상상했던 낭만적 세계는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각하며 스스로 지어낸 “허영심”(“vanity”)에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인다.

3) 조이스에게 파넬은 평생의 영웅이었으며 그가 7~8세 되었을 때 파넬에 대하여 시를 쓰기도 했다.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선거사무실에서의 파넬 추모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을 비롯하여 조이스의 모든 작품에서 파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담쟁이덩굴(Ivy)은 파넬이 이끄는 당의 상징으로 “Ivy Day”는 파넬 추모일이다.

이 단편은 소년이 살고 있는 노스 리치먼드 가(North Rich Street)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데 이곳은 조이스 가족이 한때 살았던 더블린에 실제하는 거리이다.

노스 리치먼드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크리스천 브라더스 학교에서 학생들이 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조용한 거리이다. 사람이 살지 않은 이층집 한 채가 막다른 골목 끝에 서 있었는데 이 집은 이웃에게서 떨어져 네모난 공터에 있었다. 이 골목에 있는 다른 집들은 집안에 사는 점잖은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냉정한 갈색 얼굴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D 21)

위 인용에서 거리와 집은 의인화되어있는데 “blind”라는 단어는 막다른 골목을 뜻하지만, 또 한편 눈이 멀었다는 의미도 있어서 주인공 소년이 앞으로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눈이 멀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집들을 “갈색”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음울한 색깔이고 이 집들이 미동도 없이 “냉정하게”(imperturbable) 서있는 것 역시 활기 없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음울한 분위기의 골목길과 더불어 케케묵은 곰팡이 냄새가 풍겨오는 집안의 방들은 전체적으로 더블린의 퇴락한 정황을 암시한다. 음울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소년은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꿈꾼다.

「애러비」의 주인공 소년은⁴⁾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갈 때면 짐 꾸러미를 들어주기 위하여 같이 시장에 가곤 한다. 시장은 여러 종류의 목소리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은 당시 아일랜드가 안고 있었던 사회문제들을 반영한다. 장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조차도 소년은 흠모하는 소녀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소녀의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며 시장의 군상들을 헤치고 나가는 그의 행동은 중세의 기사가 성배를 안고 적진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녀의 모습은 로맨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까지 나를 따라 다녔다. 토요일 저녁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갈 때 나는 따라가서 짐 꾸러미를 들어주

4) 이 소년은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친척으로 보이는 아저씨,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야 했다. 우리는 술에 취한 사내들과 흥정하는 아낙네들과 부딪히며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를 헤치고 나갔다. 노동자들의 욕지거리, 돼지볼살 절임통을 지키고 서있는 점원이 설새 없이 날카롭게 외치는 연도⁵⁾ 소리, 오도너번 로사에 관한 노래, “모두 모여라”나 아니면 우리 조국의 수난에 관한 민요를 부르는 길거리 가수들의 콧노래 소리들 사이로 걸었다. 이러한 소음들은 삶에 대한 하나의 감각이 되어 나에게로 다가왔다. 나는 원수의 무리 사이로 나의 성배를 안전하게 안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D 22-23)

「애러비」에서 소년의 풋사랑을 조이스는 귀부인을 흠모하는 기사의 사랑을 다룬 중세문학의 로망스 스타일로 썼다. 흠모의 대상인 소녀는 그의 짝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질서하고 거친 현실을 초월한 이상적 세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조이스가 아일랜드가 앓는 병의 발원으로 간주하는 로마 가톨릭 종교와 영국의 정치적 지배도 이 장터의 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 인용에서 언급된 오도너번 로사(Jeremiah O'Donovan Rosa 1831-1915)는 아일랜드 독립 운동가로 영국에 대항하는 단체인 “피닉스 회”(Phoenix Society)를 이끌었는데 그는 “다이너마이트 로사”(Dynamite Rossa)로 불리었다. “모두 모여라”(come-all-you)라는 노래는 시사적 내용의 민요로 거리와 술집에서 불리어졌는데 당시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이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가게 앞에서 호객을 하는 점원은 가톨릭 연도를 큰 소리로 외쳐댄다. 시장이라는 장소에 신성한 기도문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가톨릭이 국교인 아일랜드에서는 기도문이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가톨릭 종교가 아일랜드 사람들의 정신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서로 이질적인 소리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는 더블린의 장터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아일랜드 사회의 모습 그 자체이다. 이처럼 소란스러운 현실은 소년의 사랑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켜 그로 하여금 자기 환상에 빠져들게 한다. 작가는 소년의 순수하고 풋풋한 연정을 술꾼들이 득실대고 물건 흥정을 하는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그려냄으로써 정신세계와 거친 물질세계

5) 연도(litany)란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외는 기도에 응하여 회중이 짧게 화답하는 기도문.

가 대비되도록 하였다.

소년이 바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 10분전이었고 상점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아서 바자회 홀은 어두웠다. 그 때 한 카페 앞에서 두 남자가 등근 쟁반에 담긴 돈을 세고 있었는데 그의 귀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상점 앞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쓰는 한 젊은 여점원과 두 남자가 새롱대는 말이 들려왔다. 맹건의 누이를 향한 종교적 일 정도로 숭고한 일념으로 이곳에 왔건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별개의 현실 앞에서 소년은 자신이 만든 환상에 쫓겨서 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 오른다. 이 스토리에서 조이스는 현실을 로맨틱하게 왜곡하거나 착각하는 현실 인식에 대한 결여를 정신적 마비로 보았다.

Ⅲ. 원점으로 회귀하는 배회 - 「두 한량」(“Two Gallants”)

조이스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두 한량」을 가리켜 “일요일 거리의 군중과 킬데어 가의 하프, 그리고 레너헌이 등장하는 「두 한량」은 아일랜드 풍경” 그 자체라고 쓴바 있다. 「두 한량」에서는 더블린이라는 도시공간에서의 보행을 통해서 아일랜드인들의 정신적 마비를 드러나게 하는 서술적 착안이 매우 독특하다. 작품제목에서 명시된 「두 한량」은 콜리(Corley)와 레너헌(Lenehan)인데 이 두 사람을 일컫는 “Gallant”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여성에게 친절한 멋쟁이 남자”이지만 이들의 행태는 정반대여서 아이러니컬한 제목이다. 일요일 저녁 무렵 시민들이 북적대는 더블린 시내의 중심가를 두 남자가 걷고 있다. 콜리는 데이트를 하기로 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 그 옆에 레너헌이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다. 밤에 콜리에게서 술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이다. 콜리는 자신이 과거에 여자들을 어떻게 낚았고 사귀었던 여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늘고 놓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는 어느 집 하녀인데 만나는 동안 그녀는 담배와 고급시

가를 가져다 주었고 교외에 데이트를 나갈 때면 차비도 으레 그녀가 지불한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자기는 이 여성과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자를 데리고 교외에 나가 데이트를 즐긴 후 오늘 저녁에도 그녀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다.

레너헌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술집에서 남에게 붙어 공짜 술을 얻어먹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라서 사람들은 그를 “거머리”라고 부른다. 모욕도 당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다. 콜리가 여자와 떠나고 레너헌은 홀로 남게 되자 조금 전의 쾌활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모습이 된다. 그는 31살이 되어가는데 일정한 직업도 없이 남의 신세만 지며 살아가는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 그는 재산을 지닌 퀘장은 여자를 만난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 역시 여자에게 기대서 살아볼 궁리를 하는 것이다.

콜리와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자 레너헌은 콜리와 함께 걸어왔던 길을 천천히 다시 거슬러 걷기 시작한다. 그는 밤 10시 30분까지 할 일 없이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는데 그가 걷는 더블린 시내의 거리 이름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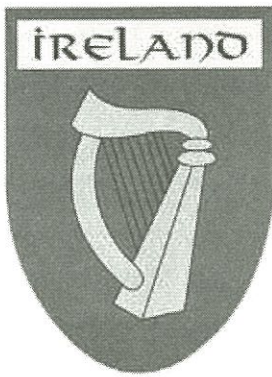
메리언 스퀘어 -> 메리언 가 -> 스티븐즈 그린 -> 트리니티 대학이 있는 그래프톤 가 -> 웨스트모어랜드 가 -> 오코넬 다리 -> 오코넬 가 -> 러트랜드 스퀘어 -> 그레이트 브리튼 가⁶⁾ -> 리프레쉬먼트 바 -> 세인트 브리튼 가 -> 케이펠 가 -> 시청 -> 담프 가 -> 조지스 가 -> 엑스체커 가 -> 그래프톤 가 -> 세인트 스티븐즈 그린 -> 메리언 가

위의 거리 이름들은 영국식민주의 지배(Ascendancy)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같다. 러트랜드 스퀘어는 영국의 정치가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가, 세인트 브리튼 (St. Britain) 가, 그래프톤 가 등은 모두 영국에 속한 이름들이다. 영국의 지배력을 암시하는 더블린 거리를

6) 현재는 Parnell Street로 명칭이 바뀜

빙빙 맴돌다가 출발 지점으로 회귀하는 레네헌의 동선은 영국이 쳐놓은 출구가 없는 울타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같다.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이나 목적이 없는 삶을 그는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두 한량」에서는 이처럼 “마비”라는 주제를 인물의 동선을 통해서 있다.

길거리 악사와 하프



외국에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거리의 악사를 보게 된다. 콜리와 레너헌이 킬데어(Kildare)가로 접어들었을 때 한 남자가 하프 연주를 하고 있었다. 하프는 전통적으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악기로서 아일랜드 정부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초청장이나 프로그램에 하프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일랜드가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기 이전 동전에도 하프가 새겨져 있었다. 거리의 악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들은 낮소 가를 따라 걸어가다 킬데어 가로 접어들었다. 술집 현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하프 악사가 노상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었고 그 둘레에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있었다. 하프 연주자는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줄을 튕기며, 사람이 올 때마다 이따금씩 재빨리 쳐다보거나 또는 지친 듯 이따금씩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켜는 하프도 덮개가 무릎 근

처까지 흘러내린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낮선 사람들의 시선과 주인의 손에서 지친 듯이 보였다. 악사의 한 손은 저음부로 '오, 모일리여, 고요히' 가락을 연주했고, 다른 손은 곡조를 따라 고음부로 연주했다. 곡의 선율은 깊고 풍부하게 울렸다. (D 48)

무표정하게 연주하고 있는 이 악사에게서는 어떤 활력이나 기쁨, 또는 슬픔조차도 찾아 볼 수 없다.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연주자가 자신의 감정을 실어 열정적으로 연주할 때 청중들이 감동하게 되는데 이 연주자는 지친 듯 생기 없이 움직일 뿐이다.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악기인 하프 역시 연주자처럼 지친 모습이다.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장소인 킬테어 가는 당시 영국계 이주민들이 주로 드나드는 술집이 모여 있는 거리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주를 해주고 돈을 구걸하는 거리의 악사는 초라한 모습으로 아일랜드 민요를 연주하고 있다. 그가 연주하는 곡, '오, 모일리여, 고요히' (Silent, O Moyle)는 아일랜드 민족시인 토머스 무어(Thomas Moore, 1779-1852)의 시집 『아일랜드 민요집』(Irish Melodies)에 나오는 시로서 슬픈 옛 전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⁷⁾. 하프와 민요 둘 다 아일랜드의 전통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술집에 드나드는 영국계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리악사는 아일랜드의 모습이다. 타국에서 건너온 정복자들에게 국가와 정치, 사회적 권리와 재산을 빼앗기고 이들에게 아일랜드의 실제주인이 구걸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모순적이다.

거리의 악사뿐만 아니라 하프 자체도 상징적 의미가 깊다. 하프는 여성으로 의인화되었는데 낮선 타인들의 시선 앞에서 덮개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지쳐 보이는 모습은 잔인한 지배자 앞에 힘없이 몸을 드러내고 서있는 여성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더 나아가 이 여성의 이미지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 건설을 합리화하

7) 그 전설의 내용은, 피오누알라(Fionnghuala)는 아일랜드 바다 신의 딸로 계모의 질투에 의하여 백조로 변했다. 기독교가 전파되어 미사의 첫 종소리가 울리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그러기까지 900년이 걸려, 피오누알라는 늙고 시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복구되지만 급히 세계를 받고 이내 묻히게 된다. 조이스는 조지 무어나 예이츠가 벌렸던 켈릭어 운동이나 아일랜드 옛 신화를 복귀하려는 시도는 아일랜드의 문화에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는 주장들을 폈는데 대영제국은 아일랜드에 대하여 군사·경제력에서 약소국인 아일랜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따라서 당시 영국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삽화에는 아일랜드를 연약한 여성으로 나타내는 반면 영국은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건장한 남성으로 그렸다. 그런가하면 문명이 뒤쳐졌다 하여 아일랜드인을 옷을 걸친 원숭이로 그리기도 했다. 「두 한량」의 스토리는 남성 건달에 의해 착취당하는 여성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제국과 식민지국의 관계를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단편소설은 여성/남성, 피식민지국가/식민지국가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젠더와 민족(인종)이라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고 보인다.

IV. 더블린의 동상들 - 「죽은 사람들」(“The Dead”)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스토리이다. 「죽은 사람들」에서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집단적인 것으로 한 국가, 또는 한 도시가 체험한 과거 역사가 지닌 힘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것으로 주인공 게이브리엘 콘로이(Gabriel Conroy)가 감지하는 죽은 자가 지닌 힘이다. 비평가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간적 배경을 1월 6일, 곧 에피페니 축일(The Feast of Epiphany)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일랜드에서는 이 날 밤 귀신들 혹은 망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스토리에서 죽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회상이 나오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아 있는가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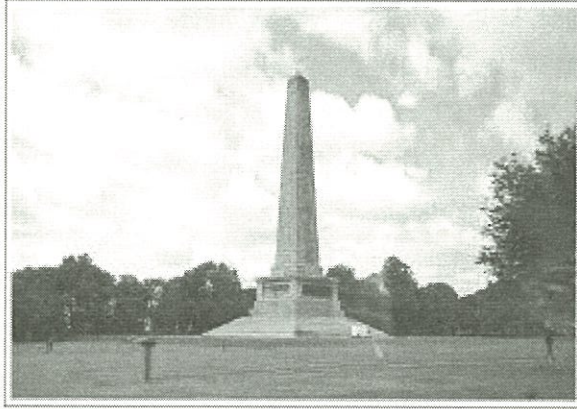
작품은 제목과는 대조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린 흥겨운 파티로 시작된다. 노처녀인 연로한 두 자매 케이트와 줄리아가 자신의 집에서 신년무도회를 열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춤을 추고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아

일랜드의 전통적인 풍습인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이 파티를 즐긴다. 주인공 게이브리엘 부부가 다소 늦게 도착했는데 이들 부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할 것이라고 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점차 세상을 뜬 고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며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게이브리엘의 어머니, 외할아버지인 패트릭 모칸과 같은 친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트라피스트회 수사들(Trappist monk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섬뜩한 분위기로 바뀐다. 이 수도원의 수사들은 평소 죽음에 대하여 잊지 않기 위하여 관 속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 이 수사들의 수도 방식은 가톨릭 종교가 삶보다는 죽음에 더욱 몰두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서 게이브리엘의 부인 그레타의 의식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고인이 된 마이클 퓨리에 대한 기억에서도 죽은 자의 살아있는 힘을 감지할 수 있다.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을 종결하는 스토리인 만큼 죽음과 삶과 같은 범우주적 차원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일랜드 역사에 접철되어있는 영국의 식민주의 정책이 더블린에서 있는 동상들만큼이나 여전히 현대 아일랜드에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죽은 사람들」에서는 더블린 시내 곳곳에 세워져있는 일련의 기념탑과 동상, 역사적 건물들이 나오는데 역사의 징표와도 같은 이 기념상들은 아일랜드가 겪어온 역사를 말해준다. 작가는 이들에 특별히 주목하기 보다는 주인공 게이브리엘의 시야에 가볍게 스치듯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제시방식은 많은 의미를 압축하여 절제 있게 제시하는 조이스의 서술방식일 것이다. 작품에 제시된 유물이 구현하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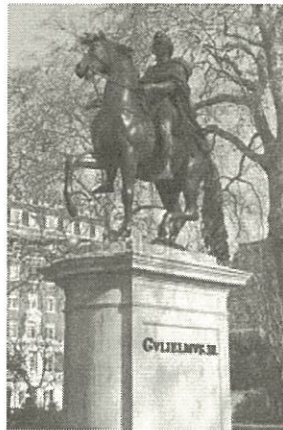
1. 웰링턴(Arthur Wellesley Wellington) 장군 기념탑



작품에서 파티가 끝나갈 무렵 게이브리엘은 눈이 내리는 창 밖을 보며 문득 피닉스 공원(Phoenix Park)에 서있는 웰링턴 기념탑 꼭대기에도 눈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웰링턴 장군(1769-1852)을 기리는 웅장한 기념탑은 더블린 시내 외곽에 위치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원인 피닉스 파크에 있다. 웰링턴 장군은 더블린에서 출생한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 나폴레옹 장군과 전투를 벌렸던 워털루 전쟁(1815년)을 승리로 이끌었고 후에 영국수상(1828-30)을 지낸 영웅적 인물이다. 이처럼 화려한 군사적, 정치적 경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의 군국주의에 대한 상징적 인물로 아일랜드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그 또한 자신이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자신을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 웰링턴 장군을 가리켜 “(의지를 관철시키는) 웰링턴, 마구간에서 태어난 신사”(Willingdone, bornstable ghentleman)(*FW* 10.17)라고 비꼬았다.

사실 웰링턴 장군이 겪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당시 아일랜드의 식자층에 속하는 게이브리엘과 같은 인물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파티에서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아이버스 양은 게이브리엘을 “친영파”(West Briton)라고 비꼬아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아일랜드의 토속문화 보다는 유럽의 국제적 문화를 지향하며 보수적 신문에 서평을 쓰고 있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한 말이다. 그녀는 게이브리엘에게 여름 휴가를 아일랜드 서부에 위치한 애란 섬으로 갈 것을 권하지만 그는 자전거 여행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할 겸 유럽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아이버스양은 그에게 프랑스어 대신 아일랜드 토착어인 게일어를 공부할 것을 권하지만 게이브리엘은 게일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응수한다. 수 세기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체제에서 아일랜드 모국어인 게일어가 사장된 비극적 현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조이스와 같은 언어예술가인 문학가는 모국을 지배한 정복자의 언어로 글을 써야 하는 처지에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윌리엄 3세(King William III of England and Prince of Orange) 동상



게이브리엘은 외할아버지 패트릭 모칸의 조니라는 말에 대한 일화를 사람

들 앞에서 재미있게 이야기 한다. 외할아버지가 어느 날 군인들의 열병식을 구경하려고 말을 타고 외출했는데 이 말은 “빌리(윌리엄 3세)왕”의 동상이 서 있는 곳에 이르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 동상의 주의를 빙빙 돌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평소 정미소에서 방아를 돌리느라 등글게 돌던 습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상의 주인공 “빌리 왕”은 아일랜드에서 유쾌하게 이야기할 인물은 아니다. 그는 1690년 아일랜드 서부 지방인 아그림(Aughrim), 보인(the Boyne), 리메릭(Limerick)에서 일어났던 전투에서 아일랜드 독립군을 완전히 패배시킴으로써 켈릭문화를 초토화 시킨 왕이다. 특히 1690년 7월 1일에 일어났던 보인 전쟁(the Battle of the Boyne)은 신교도(Anglican Church)인 영국왕 윌리엄 3세(“빌리 왕”)가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22년 영국의회가 아일랜드의 독립을 허락할 때까지 232년 동안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의 동상은 200여년이 흐른 후에도 더블린의 가장 변화가에 세워져서 패전국 아일랜드인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다.⁸⁾ 호텔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아일랜드의 패배와 좌절의 상징과도 같은 이 동상이 게이브리엘의 시야에 들어왔지만 그는 이미 동상들에게 익숙해져서 인지 별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

3. 트리니티 대학

“빌리 왕”의 동상의 위치는 바로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⁹⁾정문 앞

8) 현재는 이 동상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아일랜드 시인이며 애국자인 토마스 데이비스(Thomas Davis)의 동상이 세워졌다.

9) 아일랜드 최고의 명문인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신교(영국국교인 Anglican Church) 대학으로 설립초기에는 신교도만 입학이 허가되었고 로마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인들은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대학에서는 아일랜드의 저명한 작가들이 여럿 배출했는데 그 중에는 스위프트(Jonathan Swift),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와일드(Oscar Wild), 베케트(Samuel Beckett)와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있다. 조이스는 집안이 가톨릭교이었기 때문에 트리니티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고 가톨릭 대학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University College Dublin)을 졸업했다.

이다. 마부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별 의미 없이 트리니티 대학이 언급되었지만 이 대학 역시 아일랜드의 역사에서 영국의 식민주의의 이행을 위하여 탄생된 대학이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트리니티 대학은 16세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Queen Elizabeth I 1558-1603)가 1592년에 세운 아일랜드 최초의 개신교 대학으로 장차 아일랜드를 관리하고 이끌어갈 영국인의 후예인 영국계 아일랜드인(Anglo-Irish)들을 양성하고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4. 법원(The Four Courts)과 다니엘 오코넬(Daniel O'Connell) 동상

게이브리엘은 마차를 타고 현재도 더블린 번화가인 오코넬 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레삼 호텔(Gresham Hotel)로 가는 길에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법원을 바라본다. 마차가 오코넬 다리를 건너 오코넬 가¹⁰⁾에 접어들었을 때 말을 탄 다니엘 오코넬(1775-1847)의 동상을 지난다. 여기서도 게이브리엘의 동선은 더블린의 실제 지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법원 건물과 오코넬 동상이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도 작품에서 이 둘에 대한 언급이 이어져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상 이 둘이 연결 되어있기 때문이다. 게이브리엘은 영국법의 본거지인 법원을 바라보며 “무겁게 가라앉은 하늘을 향하여 위협적으로 서있었다”(“The Four Courts, stood out menacingly against the heavy sky”)라고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마차는 오코넬 가에 세워져 있는 오코넬 동상을 지나는데 지금까지 열거한 동상들 중에서 유일한 아일랜드 애국자의 동상이다. 오코넬은 18세기 “빌리 왕”의 제위 기간 동안 영국 지주에게 빼앗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자국민인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에게 되찾아 주기 위하여 이 법원 안팎에서 치열하게 운동을 전개했던 영웅적인 사람이다. 그는 달변의 변호사로 연설에 뛰어났고 영국에 대항하는 방식도 평화적인 방식을 택했다. 그는 무력 대신 가톨릭 신자

10) 오코넬 가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와 1922년 아일랜드 독립국(Irish Free State)을 세우기 위하여 영국군에 항거했던 독립운동을 한 역사적 장소이다. 현재는 더블린의 중심 거리로 화려한 상점들과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들로 구성된 평화적인 시위대를 결성하였는데 영국의 정치가들은 아일랜드 군대보다 이 시위대를 더 두려워했다. 오코넬의 온건한 대처방식은 군사적 대응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아일랜드인들이 자국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했다. 게이브리엘은 오코넬의 동상을 지나며 “굿 나이트, 다니엘”이라고 가볍게 인사를 한다.

오코넬과 같은 애국적 지도자 덕분에 영국의 형벌법규가 아일랜드에서 효력을 잃었음에도 수백 년 동안 걸쳐 자행되어온 식민지국에 대한 억압의 결과와 그 기억을 되살리는 기념비들은 19세기 말에도 더블린에 여전히 존재하였다. 동상의 기념비적 인물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지만 이들이 제정한 법과 기관들은 현재에도 그 위력을 조용하게 떨치고 있다. 동상의 인물들 가운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도 애국자인 오코넬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존재감을 행사하는 오래전 고인이 된 역사적 인물들인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윌리엄 왕(빌리 왕), 그레삼 공작, 웰링턴 공작, 그리고 넬슨 경¹¹⁾ 과 같은 영국에 충성을 바쳤던 귀족들은 진정으로 죽지 않았다.

5. 아일랜드 서부에서 온 그레타

게이브리엘의 부인인 그레타가 서부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부는 지리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일랜드 토착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대이다. 그레타를 진실하게 사랑한 아일랜드 서부 출신의 마이클 퓨리는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서 영국화, 문명화 되어있는 동부 더블린 출신의 게이브리엘과 대조가 된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갈 무렵 그레타가 흥겨우게 선채 노래에 몰두되어 있는 모습이 게이브리엘의 눈에 들어왔

11) 오코넬 가에는 또 하나의 영국의 영웅적 해군 제독인 넬슨(Admiral Horatio Lord Nelson 1758 - 1805)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1966년 IRA(아일랜드공화국군) 멤버들이 영국에 대한 항쟁인 부활절 봉기 50주년 기념 테러로 폭파했고 그 자리는 비어 있다가 2003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을 기념하는 '스파이어 침탑'이 세워졌다. 2003년 당시 아일랜드 국민소득은 연 3만 달러에 이르면서 영국인의 국민소득을 추월했다.

다. 이 노래는 “아그림의 처녀”(“The Lass of Aughrim”)라는 노래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 빗물이 나의 무거운 머리카락 위에 내리고
이슬이 나의 피부를 적시는데
내 아기는 차갑게 누워있네. . . (D 211)

이 노래는 한 가난한 농부의 딸이 죽어가는 자기 아기를 팔에 안고 애달파하는데 아기의 아버지인 지주(아마도 영국인인)는 그녀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아일랜드인들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다. 아그림은 아일랜드 서부의 작은 마을인데 이곳은 1690년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빌리 왕이 이끌었던 군대가 침입하여 파괴와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던 곳이다. 아그림은 그레타의 고향인 골웨이 가까이에 있다. 그레타를 사랑했으나 이제 고인이 된 마이클 퓨리도 골웨이에 살았다. 게이브리엘 부부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레타는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가 “아그림의 처녀”라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게이브리엘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게이브리엘은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질투심을 느꼈지만 그가 가스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으로 17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질투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죽은 마이클은 가스 공장의 노동자였고 직업과 신분에서 게이브리엘에 비하여 훨씬 못 미쳤지만 그가 지녔던 순수한 열정만큼은 아내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작품 끝에서 게이브리엘은 죽은 마이클의 사랑에는 자신은 지니지 못했던 진실함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는 창밖에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마이클 퓨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관대한 눈물”(generous tears)을 흘린다. 「죽은 사람들」은 다음의 단락으로 끝맺는다.

가볍게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나 보다. . . . 그가 서쪽으로 여행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 신

문이 맞았어. 눈이 아일랜드 전국에 내리고 있었다. 눈은 중앙 평원의 모든 지대에 내리고 있고, 나무가 없는 언덕과 앨렌의 습지 위에도, 그리고 훨씬 더 서쪽으로 샐는 강의 검고 거친 파도들 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이클 퓨리가 묻혀있는 언덕 위에 외롭게 서있는 교회의 뜰 구석 구석에도 내리고 있었다. 눈은 바람에 날려서 비뚤어진 십자가들과 묘비들 위에, 조그만 문 위에 달려있는 뾰족한 창에도, 황량한 가시나무에도 소복하게 쌓였다. 온 우주에 살며시 눈 내리는 소리,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위에 그들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희미하게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영혼은 천천히 잠으로 빠져들었다. (D 225)

『더블린 사람들』의 이 마지막 문단은 영문학에서 산문체로 쓰여진 가장 아름답고 시적인 글로 알려져 있다. 조이스는 모국 아일랜드가 겪어온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하여 자신의 예술을 통해서 경의를 표하였다.

〈참고문헌〉

- 전은경·홍덕선·민태운 공저,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 더블린 사람들』, 동인출판사, 2005.
- Begnal, Michael. *Joyce and the City*.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2.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Joyce, James. *Dubliners*. London: Penguin Books, 1992.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By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s, 1959.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Abstract〉

Dublin Landscapes in James Joyce's
Dubliners

Chun, Eun Kyung

Though James Joyce is an exile from the city he continually seeks to recreate Dublin in all of his literary works. When Joyce wrote *Dubliners* Ireland underwent a disastrous historical period as a colonized country. The colonized society of Dublin reflects the history of the colonial power. Joyce recorded the damaged city and people who lived there in *Dubliners*. For Joyce Dublin is a city in which people are trapped by British imperialism and Roman Catholicism and he wanted to have “one good look at themselves in my [his] nicely polished looking glass” in his *Dubliners*. Joyce saw it as the first step towards the spiritual liberation of his country.

For Joyce writing was both a creative act and an act of liberating. Joyce, as a literary artist, attempted to achieve “spiritual liberation” of Ireland and redeem the cruel history of Ireland through his language and vision. In this writing Joyce's portrayal of Dublin is explored through four stories, ‘The Sisters’, ‘Araby’, ‘Two Gallants’, and ‘The Dead’ in *Dubliners*.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 Irish history, Colonialism, Roman Catholicism, spiritual paralysis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